

직장 어린이집 영어 커리큘럼에 나타난 매체 활용 및 유아 음성 언어 분석*

정현성(한국교원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어린이집 커리큘럼 영어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한 민간 직장 어린이집에서 개발하고 진행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의 매체 활용 및 유아의 음성 언어를 분석한 논문이다. 매체 분석을 통해 활동 중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키워드로 동사를 자주 노출시켜줄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수에 대한 치밀한 활동 개발도 필요하다. 유아의 음성 언어 분석을 통해서 유아들의 외래어 발음이 화석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서 활동 평가 영상 분석을 통해 합창 반복의 필요성과 유아의 발화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교사의 인내, 매체에 대한 교사의 신뢰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주제어: 유아 영어, 음성 언어, 매체, 종단 연구

I. 서론

본 연구에서는 성남시에 소재한 민간 A 직장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유아 교육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진행한 영어 수업을 분석하고, 이 커리큘럼에서 사용된 영어 동화 영상, 어휘, 동요 및 찬트, 파닉스(phonics), 말하기 활동 등의 매체가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전달되고 있는지, 유아의 음성 언어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한다. 또 만 2세 어휘 평가 영상, 만 3, 4세 개별 평가 영상, 만 3, 4세 도서 활동 영상을 바탕으로 동일한 네 명의 유아에 대한 연차적인 음운 발달과 어휘 습득 과정을 종단적으로 관찰하였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유아 개별적인 발화 특성과 더불어, 유아 전반에 대해 일반화할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이며, 커리큘럼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는

* 본 연구를 위해 커리큘럼 자료, 수업 영상 제공과 수업 참관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엔씨소프트 어린이집에 감사드립니다.

무엇인지 제안하는 것을 2차적 목표로 한다.

누리 과정에 유아 영어 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영어 교육이 대부분 시행되고 있고, 수업의 빈도와 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김수연, 2011; 김순환, 2008). 그렇지만, 유아 영어 교육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아직 갈 길이 멀고, 관련 자료를 축적해 일반화를 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 이 시점에서 외국어인 영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교수 방법을 어느 시기에 제시하는 것이 최적화된 교육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강후동(2014)은 8개의 유아 영어 교재에 대해 개발 기준 및 체계, 성취 기준의 적절성, 단원 주제 및 문장 내용의 적절성, 영어 문장의 구조 및 수준, 문장 및 대화문의 오류 및 어색함, 교실 영어 표현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 영어 교재가 초등 영어 교육 과정과 상충되거나 선행되는 부분이 많고, 유아에게 적절하지 않거나 어색한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다. 유아 영어 교육의 방향은 이를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유아의 모국어 발달은 초기에는 무척 더디서 12개월 정도에 웅얼이를 끝내고 첫 단어를 말하기 시작해 일주일에 한 단어 정도를 익힐 수 있다. 하지만 약 18개월 시점에 50단어 수준에 도달한 이후 ‘어휘 폭발기(vocabulary spurt)’를 거치면서 매일 한, 두 단어를 익힐 수 있게 된다. 2세에서 6세 사이에는 매일 10 단어 정도를 익혀, 6세 시점에는 약 14,000개의 어휘를 익히게 되고, 이후 몇 년간 매일 20개 이상의 새로운 단어를 지속적으로 익히게 되면서 고등학교 시기에는 60,000 단어 정도를 익힐 수 있다(Clark, 1993). 따라서 ‘어휘 폭발기’에 충분하고 적절한 언어적 자극을 유아에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휘 측면에서 유아는 초기에 외국어에 노출될 때에 모국어 습득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리의 흐름을 듣고 단어와 형태소(morpheme)를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Wewatchedthedoggiesrun”이라는 소리의 흐름을 듣고 “we,” “watch,” “-ed,” “the,” “doggie,” “-s,” “run”으로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유아의 경우 이러한 요소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강세(stress)를 활용한 ‘주목 전략(spotlight strategy; Peters & Strömquist, 1996),’ ‘대비 전략(matching strategy; Peters, 1985; Slobin, 1985)’을 사용한다. 주목 전략은 영어의 경우 기능어(function word)가 아닌 주로 강세를 받는 내용어(content word)와 일반적인 강세 유형인 강-약 유형을 가진 요소에 더 주목하여 단어를 추출하는 전략이다. 일치 전략은 예를 들어 ‘bigdoggie’를 듣고서 기존의 어휘 목록 중 ‘doggie’와 대비해 나머지 ‘big’은 새로운 단어로 파악하는 전략이다.

이와 같이 유아들이 어떻게 영어로 듣는 소리의 흐름에서 개별 요소를 추출하여 머릿속에 어휘 사전을 구축할 수 있게 할지, 이러한 어휘를 어떻게 의미와 연결시키고 발음하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단어를 적절하게 굴절시키거

나 파생시킬 수도 있어야 하고, 새로운 어휘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유아가 영어를 습득할 때, 단어와 형태소와 같은 요소의 추출, 단어의 형성과 이해, 단어의 결합, 문장의 발화와 이해, 발음의 이해와 발화의 측면에서 어떤 발달 단계를 보이고, 어떤 요소에 주목해 보아야 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찰과 분석을 바탕으로 유아영어교육을 위해서는 유아들이 어떠한 요소들을 먼저 학습하는지 관찰하고 그 학습의 과정을 돕거나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식별하는 것도 중요하다(O'Grady, 2005).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기초 연구로 민간 A 직장 어린이집 커리큘럼을 통해 수업에서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분석하고, 네 명의 유아들에 대한 3년간의 종단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차후 더 심도 있는 연구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모국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유아 대상 영어 또는 외국어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유아 영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각이 확산될 경우, 본 연구처럼 종단적인 분석과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가 그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가 진행된 어린이집은 성남시 소재 민간 기업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어린이집으로, 유아들은 오전 8시경 등원해 7시경 하원 한다. 연령은 만 2세부터 만 5세까지로 한 반은 15명에서 20명 사이로 구성되어 있다. 두 명의 정교사와 한 명의 외국어 전담 교사가 함께 협력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어와 중국어 수업이 동일한 내용으로 교차해서 주 3회씩, 매 차시 20분 정도 진행된다. 커리큘럼은 어린이집 커리큘럼 개발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였으며, 필요한 동화나 동요를 기존의 것을 사용하거나 새롭게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수업은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진행되며, 누리과정에 따른 생활 주제에 따라, 매달 각 주제별로 동화 2편, 동요 2편을 선정 또는 개발하여 수업에 활용한다.

2. 매체 분석

매체 분석을 위해 만 4세 및 5세에 4주 동안 제공된 활동계획안 및 수업자료, 수업 동영상상을 분석하였다. 만 4세 수업은 누리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 동네'라는 생활 주제를 다루고 있고, 만 5세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루고 있다. 활동은 크게 담임 교사 활동과 영어 교사 활동으로 나뉜다.

3. 유아 음성 언어 분석

연령별 지속적인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는 발화 및 발음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네 명의 유아들을 관찰하였다. 현재 만 4세반에 속한 이 유아들의 만 2세 때의 어휘 평가 영상, 만 3, 4세 때의 활동 평가 영상과, 연구 시점에 이루어진 사후 대면 평가와 수업 참관을 통해 3년에 걸친 중단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업 활동의 주제는 ‘color’였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편의상 유아들을 여A, 여B, 남A, 남B로 호칭한다. 여A와 남A는 여B, 남B에 비해 생일이 늦다. 어휘나 발음의 노출에 대한 유아의 반응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2015년 만 3세반에 제시된 주요 어휘 중, 본 분석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단어를 중심으로 교사 노출과 유아 발화 통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2015년에 사용된 3세반 주요 어휘 통계

어휘	교사 노출	유아 발화
draw	4	0
banana	10	9
read	42	19
play	71	30
eat	72	26
sing	93	35
green	209	157
red	363	282

<표 1>을 보면 ‘green, red’와 같은 색깔에 관련된 단어는 노출과 발화의 빈도가 아주 높지만, 상대적으로 동사와 외래어인 ‘banana’의 노출과 발화의 기회는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4. 도서 활동 평가

개별적인 유아 관찰은 어려웠지만 전체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 활동 평가 영상을 통해 유아의 음성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의 활동과 피드백에 대한 관찰이 가능했다. 이 평가는 개별 평가가 아니라 학습에 사용된 도서를 이용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평가로 ‘A school day’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개별 유아에 대한 평가보다는 교사의 활동과 제시 방법에 대한 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교사와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III. 연구 결과

1. 매체 분석

가. 수업 진행

만 4세의 경우 담임 교사는 주로 학생들이 생활 주제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아들이 소리와 단어를 듣고 이해하거나 직접 활동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영어 교사는 주로 파닉스 활동과 더불어 유아들이 흥미를 느낀 주제와 이해한 단어를 바탕으로 언어 활동을 통해 말하기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 교사 공히 학생들의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 동요와 찬트를 수업 초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5세의 경우 담임 교사와 영어 교사의 역할 분담이 4세 수업에 비해 다소 중첩되거나 담임 교사가 담당하는 말하기 활동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어휘의 경우 동화 영상을 감상한 직후 키워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개별 어휘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직접 활동 직전에는 활동의 과정을 영어로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인 절차는 연령별, 주제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보면 동화 영상 감상-키워드 제시-동화 이해 확인-동요 듣고 불러 보기-파닉스-말하기 활동-직접 활동-찬트-말하기 활동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순서는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몰입할 수 있게 동화와 동요, 찬트 등이 적절히 안배되어 교차로 잘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해 활동과 말하기 활동 또한 어느 활동이나 시간에 치우침이 없이 잘 배치되어 있다.

나. 동화 영상

동화 영상을 유아들에게 제시할 때, 교사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유의 발음이 유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아들이 몰입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음성 자료의 소리 크기에 대해 교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최적의 소리로 동화가 제시될 수 있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다.

동요나 찬트에서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동화 영상에서도 유아들은 'beep, ring, chuff, rumble, vroom, tap' 등과 같은 의성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개별 자모음에 교정적 피드백이 필요할 경우 이러한 의성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chuff, vroom'과 같은 단어의 초성 및 자음 연쇄는 발음 습득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 어휘

어휘에 관해서는 키워드 프리젠테이션 자료에서 제공하는 어휘의 목록이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을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만 5세 수업에서 제시한 ‘just right’과 같은 추상적인 어휘의 경우에는 유아들에게 노출은 하되 주요 어휘나 목표 어휘로는 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키워드에서 꼭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직접 활동의 경우 활동의 절차를 영어로 제시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활동에 사용되는 어휘와 동사 표현도 동화에서처럼 키워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해 명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만 4세 딸기를 이용한 요리 활동에서 ‘Spread strawberry jam on the bread.’라는 표현이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지만, ‘spread’라는 동사를 따로 명시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본 연구의 후반에 등장하는 네 아동의 어휘 평가에서 동사에 대한 이해와 발화 능력이 명사나 형용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에서 동사에 대한 노출의 빈도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라. 동요 및 찬트

동요의 경우, 기존의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겠지만, 새롭게 개발하는 동요의 경우에는 목표 어휘에 대한 강조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듣기 활동의 경우 발화의 핵심 내용이 되는 어휘에 전체 억양 유형에서 핵강세(nuclear stress)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요에서도 이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휘보다는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휘에 강박(nuclear stress)이 올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만 4세에 사용되는 ‘Fly and frog’ 동요에서 강박을 받는 단어를 아래와 같이 밑줄로 표시할 수 있다.

Fly, fly there goes a fly.
 Cow, cow there is a cow.
 Buzzing buzzing fly.
 The fly is sitting on the cow.
 Shoo, fly!
 Go away!

마. 파닉스

파닉스 활동의 경우 초기에는 철자를 제대로 인식하는 활동에서 출발하고 있다.

유아들이 철자를 찾는 활동에는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철자와 섞여 있는 목표 철자를 어렵지 않게 찾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에 유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다소 복잡성이 더한 활동으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그 차이가 분명한 철자를 제외하고 다소 비슷한 형태를 띠는 철자들 중에 목표 철자를 찾게 하거나, 동일한 철자라도 다양한 서체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g’를 목표 철자로 할 경우, 다른 철자는 배제하고 그와 모양이 비슷한 ‘b, c, d, p, q’ 등과 섞어 놓고 찾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서체의 경우 인쇄체 ‘a’와 필기체가 같은 철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서체에 노출시켜 줄 필요가 있다.

만 5세 ‘Phonics R’ 활동 중 [rɛd]와 [lɛd]를 바르게 발음했는지 유아들에게 확인하는 활동이 있다. 우선 두 발음이 다를 뿐이지 틀렸다고는 할 수 없고, 유아들이 ‘바르게 발음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듣고 변별하기 활동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선생님이 말하는 것이 같은지 다른지 말해봐.”

1. [lɛd] [lɛd]
2. [rɛd] [rɛd]
3. [rɛd] [lɛd]

아니면 숫자와 색깔을 소리와 연결해 다른 소리가 나는 것을 고르게 할 수도 있다.

“자,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듣고 다른 소리가 나는 것을 골라봐.”

녹색 - [rɛd] 파란색 - [lɛd] 노란색 - [rɛd]

파닉스 활동 중 아이들이 철자나 소리에 대한 파악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동일한 유형의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 동일한 철자를 통한 파닉스 활동의 경우에 철자에 대한 인식이 완료되었으면, 그 철자가 들어간 단어 찾기, 단어 속에서 해당 철자 찾기 등 신속하게 다른 유형의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교사의 유연성 및 순발력이 필요하다. 또 파닉스 활동의 시간은 아이들의 집중력을 고려하여 5분 이내로 마치는 것이 좋다.

또 파닉스 활동 시에는 철자의 대표음으로 한정해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c’의 경우 /k/, /f/, /ks/ 등의 발음이 가능하지만, 대표음인 /k/로 지도하는

것이 좋다. 철자의 경우에도 /k/ 소리를 지도할 경우 대표 철자인 'c'로 우선 지도하는 것이 좋고, 'ch' 철자는 차후에 다른 차시에서 지도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Nicholson, 2005).

그리고 파닉스를 지도할 때, 모든 철자와 음에 대해 지도하기보다는 유아들에게 문제가 있는 음운과 철자에 대해 지도하는 것이 좋다. 또 정확한 조음이 어려울 때는 거울 등을 활용해 정확한 조음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림이나 글자만 활용하기 보다는 주위의 사물을 이용해 특정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발견하는 학습도 유용하다.

바. 말하기 활동

말하기 활동의 경우 담임 교사나 영어 교사의 기다림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충분히 생각하고 말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지만, 교사가 아이들이 답하기 전에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개인 활동의 경우 답이 없으면 전체 유아들에게서 답을 얻도록 하는 등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

말하기 활동에서 관찰된 유아의 발음은 /r/, /l/의 구분과 'truck, train'에서처럼 자음 연쇄(consonant cluster)도 대부분 어렵지 않게 발화가 가능했다. 특히, /r/을 발음할 때 수반되는 이차조음(secondary articulation)인 입술의 원순화(lip rounding)는 우리말을 할 때는 잘 구현되지 않는 조음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잘 구현하는 것으로 볼 때, 영어를 모국어와는 다른 별도의 목록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 4세 'Counting legs' 활동에서 유아들은 동물이나 곤충의 다리 수를 세어 말하고 적는 활동을 한다. 아이들이 수를 순서대로 이해하고 말하는 데는 대부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임의의 순서로 수를 제시할 때는 제대로 이해하고 발화하지 못하는 유아들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숫자 순서를 섞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 수를 적는 활동에서도 적지 않은 유아들이 발화할 수 있는 숫자를 제대로 적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숫자의 모양과 발음을 연계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증거로, 숫자 모양에 관해서도 파닉스에 준하는 활동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숫자의 모양도 다양하게 해서 일반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일부 유아들은 전체가 함께 수를 셀 때는 문제가 없지만, 개별적으로는 수 세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자신감의 문제인지, 수 세기에 대한 추가적 활동이 필요한지 개별 평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말하기 활동을 할 때 너무 많은 유아들을 앞에 세워 발표하게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제도 어렵고, 교사가 유아들의 발화를 듣고 평가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활동에 따라 두 명씩만 나와서 활동을 마치고, 다시 다른 두

명이 나와서 동일한 발화 활동을 하는 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외래어를 발음할 때, 우리말 목록으로 인식해 발음하는 경향이 많았다. ‘supermarket, banana’등인데, ‘supermarket’의 경우 마지막 음절에 있어야 할 모음의 약화가 없었고, ‘banana’의 경우에는 2음절에 있어야 할 강세와, 1음절의 약화 모음 [ə]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유아들이 많았다. 이것은 단어의 이해에도 직결되는 문제로 유아들에게 ‘banana’를 정형화된(canonical) 원어민 발음으로 들려주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유아들이 외래어를 쉽게 이해한다고 해서 발음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형화된 발음에 노출시켜 발음하도록 유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흥미로운 것은 ‘police car’를 발화할 때 ‘police’가 외래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음절을 약화된 모음 [ə]로 발음하지 않고, 완전 모음(full vowel) [ɔ]로 발음하는 유아가 많았다. 교사의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교사들은 매체를 잘 분석하여 교사의 개입보다는 매체 자체가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히 매체에 의존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사. 직접 활동

언어에 집중하기 보다는 만들어 보기, 해보기 등 주제에 관련된 과업을 수행하는 직접 활동은 주로 담임 교사가 담당하는 만큼, 교사가 활동 중에 활동에 필요한 단어에 대해 유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활동 중에는 키워드에 나오는 어휘도 제시하지만, 활동에 필요한 동사에 대해서 유아들의 노출이 적은 만큼, 보다 많은 노출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2. 유아 음성 언어 분석

유아 음성 언어 분석은 서론에서 제시한 것처럼, 영어를 습득할 때, 소리의 흐름 속에서 단어와 형태소 같은 개별 요소를 유아들이 어떻게 추출하고, 단어의 형성과 이해, 단어의 결합, 문장의 발화와 이해, 발음의 이해와 발화의 측면에서 어떤 발달 단계를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지는 못하고, 단어의 형성과 이해 및 발음의 이해와 발화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 여A

이 유아는 만 2세 어휘 평가에서 ‘banana’ 그림을 보고 처음에는 외래어로 인식해 발음을 하였지만, 선생님이 정형화된 발음으로 피드백을 주자 강세에 대해서는 제대

로 반응하였다. 이것은 분절음의 발음과, 강세에 대한 교사의 교정적 피드백이 적절하게 제공될 경우, 유아들이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림을 보고 단어를 도출하는 평가에서 명사와 형용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답으로 답했지만, 'sing'과 같은 동사에 대해서는 이해가 불분명했다. 평가 활동 중 교사와의 상호 작용이 좋았다.

'color'를 주제로 한 만 3세 활동 평가 영상에서는, 이해 평가의 경우, 'red, purple'에 대해 문제가 없고, 'brown'은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이해하고 있었다. 발화 평가에서 'green, blue, yellow'의 이해 및 발음에 문제가 없었다. 'green'에서 두 번째 자음 /r/에 수반되는 입술의 원순화가 다소 부족하지만 교정적 피드백과 지속적인 노출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같은 주제의 만 4세 활동 평가 영상에서, 이 유아는 색깔에 대한 이해가 좋고 발음에도 문제가 없었다. 특히 만 3세 활동 평가 영상에서 부족했던 입술의 원순화가 크게 개선되었다. 피드백 및 활동 제시와 관련해 교사가 'green color'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green'이나 'color green'이라는 표현이 될 수 있도록 교사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 작성 시점에 이루어진 사후 대면 평가에서, 이 유아는 만 2세 어휘 평가에서는 교사의 정형화된 'banana' 발음 피드백에 대해 적절히 발화하였음에도,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루어진 이 평가에서는 그림을 보고 정형화된 발음을 하지 못하고 외래어 발음에 머물러 있었다. 정형화된 발음으로 피드백을 주자 이해하지 못하고 반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rainy, red' 등의 단어에서의 /r/ 발음과 입술의 원순화는 잘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유아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동사의 이해와 발화는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후 대면 평가 직전에 이루어진 수업 참관에서 이 유아는 수를 순서대로 발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one, two' 다음의 'three' 이후에는 발음을 불분명하게 조음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곤충과 동물의 다리를 세어서 수를 적을 때 '4'외의 수는 발화와 수 모양을 일치시키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여B

두 명의 여자 유아 중 생일이 빠른 유아이다. 만 2세 어휘 평가에서 채소와 과일에 관련된 어휘, 날씨에 관련된 어휘는 이해는 잘하고 있지만, 발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만 'rain'은 정확하게 발음하였다. 가족 관계 및 색깔 관련 어휘에 대해 이해와 발화가 모두 좋지만 'red'의 경우 정확한 /r/이 발음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다른 유아들과 마찬가지로 'jump'를 제외한 동사를 이해하고 발화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평가 활동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른 유아들에 비해 집중력이 크게 떨어

졌다. 동물 관련 어휘에 대해서는 ‘dog’를 제외하고 이해와 발화 모두에 어려움이 있었다. 숫자는 시간이 다소 걸리기는 하지만 모두 셀 수 있었다. 이 유아는 다른 유아들에 비해 특히 집중력이 떨어지는 만큼 4분 정도의 짧은 평가를 자주할 필요가 있다.

이 유아에 대한 만 3세 활동 평가 영상은 존재하지 않아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 4세 활동 평가 영상에서 색깔에 대한 이해와 발음 모두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어휘 평가에서 발견된 ‘red’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아, 판단할 수 없었다.

사후 대면 평가에서 ‘banana’ 단어에서 있어야 할 모음의 약화는 문제없이 처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세 위치는 2음절에 확실히 두지 못했다. 동사의 경우 노래 부르는 모습에 대해 ‘sing a song’이라고 발화가 가능했지만, 이 외의 동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유아는 특히 동사 표현 자체를 발화하기 보다는 동사에 연관된 형용사나 명사로 표현을 대체하여 발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 남A

만 2세 어휘 평가에서 그림을 보고 어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평가에 대한 반응이 없어서 평가 활동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지, 보편적 언어 능력의 문제인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 그림 보다 실제 물건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면 효과가 있을지 실험해 볼 필요가 있다. 평가에 대해 반응이 없다면 교사는 피드백을 제공한 후 다음 어휘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 유아도 색깔을 나타내는 어휘 중 ‘green, yellow’는 정확하게 발화하였고, 동사 중에서도 ‘sing’에 대해서도 발화가 가능했다. ‘eat’ 동사의 경우에는 동작을 보고서도 반응이 없었다. 과묵한 성격으로 생일이 다소 늦다는 점이 평가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숫자에 대해서도 발화를 어려워했으며, ‘jump’의 경우 이해는 하지만 발화하지는 못했다.

만 3세 활동 평가 영상의 이해 평가에서 ‘red’는 이해하고, ‘purple’은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이해하고 있었다. ‘brown’은 이해에 어려움이 있고, ‘green, yellow’는 발음은 되지만, 음절 초성의 자음 연쇄와 입술의 원순화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다.

만 4세 활동 평가 영상에서 색깔에 대한 이해는 좋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만 3세 때 발견되었던 자음 연쇄 발음에 대한 개선은 없었다.

사후 대면 평가에서 ‘banana’ 발음의 경우 모음의 약화와 강세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해 외래어 발음으로 일관하였다. ‘rainy’는 스스로 단어를 생산하지는 못하지만 교사가 피드백으로 단어를 제시했을 경우에는 발음에 문제가 없었다. ‘red, green’의 경우 /r/ 발음과 자음 연쇄, 입술의 원순화에 문제가 없었고, 동사의 경우에도 ‘eating,

sing a song'의 경우에는 그림을 보고 제대로 표현을 발화하였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 동사의 발음과 발화가 더 나은 것은 활동과 교실 영어 때 집중해서 참여하였거나, 교실 이 외의 환경에서 자주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후 대면 평가 직전의 수업 참관에서 이 유아는 /r/의 발음이 좋았고, 'sing, play, eat' 등의 표현에도 문제가 없었다. 다만 'three'의 초성에 나타나는 마찰음을 조음하는데 조금 더 정교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라. 남B

남학생 두 명 중 생일이 빠른 유아이다. 교사가 발화한 'banana'에 대해 제대로 반응하였고, 날씨 어휘 중 'cloudy'는 발화는 되지만 이해하지는 못하고, 'rainy'는 이해가 가능하다.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mommy, daddy'에 대해 이해가 가능하고 색깔을 나타내는 어휘는 모두 이해와 발화가 가능했다. 다만 'red'의 경우 초성의 /r/ 발음을 /l/에 가깝지 않게 발음하는 혼란이 필요하다. 동사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능하지만 발화에는 어려움이 있고, 동물에 관련된 어휘도 이해는 가능하지만 발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숫자는 이해와 발화 모두 문제가 없었다. 평가 활동 시 활발하게 교사와 상호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만 3세 활동 평가에서 색깔에 대한 이해가 좋고 발음도 좋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다는 단점이 있었다.

만 4세 활동 평가에서 여전히 목소리가 작은 점이 극복되어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 하지만 단어에 대한 이해와 발음 모두 문제가 없었다.

사후 대면 평가에서 여전히 목소리가 작고, 그림을 보고 색깔에 관련된 단어와 'rain, rainy' 정도의 단어만 제대로 발화하고, 특히 동사의 경우에는 이해와 발화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3. 도서 활동 평가 영상

가. 만 3세 도서 활동 평가 영상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A school day'라는 주제로 진행된 도서 활동에서 교사가 동작을 설명할 때 'drawing, eating, singing, playing'과 같이 분사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draw, eat, sing, play'와 같이 원형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유아들이 'reading'이라는 동사를 발화해야 할 때 명사인 'book'으로 반응하였다. 교사는 명사와 형용사만 키워드 프리젠테이션 형태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동사도 목표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 키워드 형태로 유아들에게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유아 전체가 발화를 하게하는 합창 반복 훈련(choral repetition)이 자주 시행되기는 하지만, 특히 유아들이 어려워하는 표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반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banana, piano, beautiful, supermarket’ 등 두 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강세로 인해 유아들이 이해나 발화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활동이 효과적일 수 있다. 동사 중 ‘sing, play’의 경우에는 유아가 발화할 기회가 많았지만, ‘draw, eat’는 교사 노출이 많은데 비해 유아들의 발화 기회는 적었기 때문에 균형 있게 유아에게 발화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동화 영상과 동요 등의 매체가 구현되고 있을 때 교사가 어휘를 반복하거나 질문을 하는 등 매체 중간에 간섭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교사가 정확한 표현과 발음을 구사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매체를 신뢰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또 유아들의 발화 기회를 의도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유아들이 동사에 대한 이해와 발화 능력이 명사나 형용사에 비해 떨어지는 만큼, 동사에 대한 반복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사를 설명할 때는 교사의 발화보다는 동작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는 유아의 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동화 영상-질문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 기다리기-교사 피드백의 순서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나. 만 4세 도서 활동 평가 영상

만 3세와 같은 주제로 평가가 진행되었다. 교사가 ‘What are they doing?’과 같이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을 올림 억양으로 질문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유형의 활동이 반복되지만 아이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보기 어려웠다. 만 3세와 마찬가지로 매체 구현 중 교사의 개입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reading’ 단어를 위해 교사가 책 읽는 모습을 흉내 낼 때는 책 읽는다는 것이 분명하도록 천천히 책을 넘길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점은 만 3세 도서 활동 평가 영상에 동사인 ‘reading’을 그냥 ‘book’으로만 반응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다.

교사가 유아들에게 던지는 질문 중 ‘What did you hear?’의 경우, 유아들이 실제 의성어나, 의태어, 그 외 소리 등을 듣고 답하기는 적절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영어 표현을 답하기에는 개념적으로 어려운 질문이라고 판단된다. 그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해 교사가 답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지만, 제대로 영어 표현을 답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없었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매체 및 유아 음성 언어 분석을 정리하고, 어린이집 커리큘럼 영어 프로그램의 발전 및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매체 분석을 통해 드러난 장점은 수업 진행의 연결성에 무리가 없고,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몰입할 수 있도록 언어 활동과 동요 및 찬트, 직접 활동이 잘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언어 활동도 이해 활동과 말하기 활동이 적절히 안배되어 있다. 동화 활동 직후 제공되는 키워드 프리젠테이션은 아이들이 어휘를 명시적으로 학습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매체 분석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난 사항은, 동화 영상을 제시할 때 비정형적인 교사의 발음이나 언어 표현이 유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교사의 간섭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또 매체가 구현될 때 소리의 크기를 최적으로 조절해야 하고, 의성어나 의태어를 적극적으로 발음 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프리젠테이션은 동화 영상에 관련된 어휘뿐만 아니라, 직접 활동에 사용되는 어휘들도 특히 동사를 중심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발화하지 못하는 동사에 대한 노출을 확장시켜줄 수 있다.

동요 및 찬트를 개발할 때는 주요 어휘에 강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파닉스의 경우 모든 음이나 철자를 다루기보다는 유아들이 어려워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비슷한 철자 가운데서 목표 철자를 찾거나, 같은 철자라도 다양한 서체 가운데서 찾는 활동이 필요하다. 듣기 활동은 맞는 발음을 고르게 하는 것은 지양하고, 소리를 변별하는 활동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일한 차시에서 하나의 철자에 대해 다양한 소리를 다루거나, 하나의 소리에 대해 다양한 철자를 다루는 것은 유아들이 목표하는 음이나 철자에 대해 편해졌을 경우, 다른 차시에 다루는 것이 좋다. 또 주위 사물을 통해 특정 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찾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말하기 활동의 경우, 교사는 유아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끈기 있게 기다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외래어의 경우, 유아들이 본인들에게 익숙한 발음으로 구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후 아이들이 정형적인 발음을 들을 때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정형적인 발음으로 유아들에게 노출시켜줄 필요가 있다. 특히 강세와 모음의 약화에 유의해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교사가 매체를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매체 구현 중 지나친 개입은 줄일 필요가 있다. 수를 수 모양과 일치시켜 발화하거나 적는데 어려움을 겪는 유아가 있는 만큼, 파닉스에 준하는 정도의 수와 관련된 활동이 필요하다. 수 활동을 할 때, 순서대로 이해하고 발화하게 한 후에는 임의의 순서로 수를 이해하고 발화하게 하거나 적게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네 명의 유아에 대한 음성 분석 결과, 네 유아 공히 명사와 형용사를 이해하고 발

화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지만, 동사를 이해하고 발화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어려워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활동 중에 동사를 더 많은 비율과 빈도로 노출시켜줄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직접 활동 이전에 동사에 한정해 키워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방법도 좋다.

여A의 경우 /r/ 발음 자체와 그에 수반되는 입술의 원순화는 잘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 대면 평가에서 'three' 이상의 수를 발음하고 적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명시적이고 개인적인 지도와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2세 어휘 평가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banana'에 대해 사후 평가에서 이해와 발음에 다소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래어 발음이 화석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B는 /r/ 발음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동물에 관련된 어휘에 자신 없어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여A와 마찬가지로 'banana'를 발음할 때 강세 처리가 이해와 발음 측면에서 확신이 없었다. 모음의 약화는 제대로 이루어졌다. 다른 유아들에 비해 집중력이 다소 떨어지는 만큼, 활동과 평가를 할 때 4분 이하의 짧은 주기를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A는 다른 유아들에 비해 동사의 이해와 발화가 좋았다. 2세 평가에서는 문제시되었던 자음 연쇄와 입술의 원순화 문제가 사후 대면 평가에서는 개선되었다. 다만 단어의 초성에 나타나는 마찰음의 발음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남B는 /r/ 발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동물에 관련된 어휘에 대한 발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명의 유아에 대한 음성 분석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외래어의 발음이 화석화되지 않도록 전 연령에 걸쳐 교사들이 꾸준히 관찰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동사의 경우 명사, 형용사와 비교해 유아들의 이해와 발화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명시적 키워드나 다른 활동의 형태로 좀 더 많이 유아들에게 노출시키고 발화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우려되었던 자음 연쇄와 /r/ 발음은 유아들이 비교적 무난히 해내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관찰 이외의 특별한 활동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

도서 활동 평가 영상을 통해 개선점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교사가 동사를 제시할 때는 분사형 보다는 원형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이다. 또 동사는 유아들이 어려워하는 표현들에 대해 합창 반복 훈련과 발화의 기회를 더 자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매체 분석에서처럼 매체에 대한 신뢰와 유아가 발화하기를 기다려주는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연구해 오지 않은 분야에 대한 기초 및 토대 연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이 된 요소들에 대해 타당화 과정을 위한 비교 자료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당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분석을 통해 특정 어휘의 노출의 빈도와 유아 발화의 기회 제공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고, 교사의 활동 전개 방식에 대한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했다. 또 적절한 피닉스 활동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 추후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이 진행된다면 어휘나 활동에 대한 자료가 더 많이 구축되면, 좀 더 내실 있는 종단적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누리 과정에서 영어 교육이 공식적으로 도입될 때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후속 연구를 통해 수업 및 유아 음성 자료를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유아의 단어 및 형태소 추출 과정, 단어의 결합 관계 이해, 문장의 발화와 이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 강후동(2014). 초등영어교육과정과 연계한 유아영어교육교재의 분석과 개발 방향. **영
어교육연구**, 26(1), 131-147.
- 김수연(2011). 영어 동화 제시 방법에 따른 유아 영어 학습자의 어휘 이해 회상능력
의 차이.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환(2008). 유치원에서의 영어교육 현황과 담당교사의 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13(5), 349-377.
- Clark, E. (1993). *The lexicon in acquis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icholson, T. (2005). *Phonics handbook*. West Sussex: Whurr Publishers Ltd.
- O'Grady, W. (2005). *How children learn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ters, A. (1985). Language segmentation: Operating principles for the perception
and analysis of language. In D. Slobin (Ed.), *The crosslinguistic study of
language acquisition, Vol. II: Theoretical issues* (pp. 1029-1068). Hillsdale,
NJ: Earlbaum.
- Peters, A., & Strömquist, S. (1996). The role of prosody in the acquisition of
grammatical morphemes. In J. Morgan & K. Demuth (Eds.), *Signal to
syntax* (pp. 215-232). Mahawah, NJ: Earlbaum.
- Slobin, D. (1985). Crosslinguistic evidence for the language-making capacity. In D.
Slobin (Ed.), *The crosslinguistic study of language acquisition, Vol. II:
Theoretical issues* (pp. 177-199). Hillsdale, NJ: Earlbaum.

논문 접수: 2016년 9월 30일

논문 심사: 2016년 10월 21일

게재 승인: 2016년 10월 24일

<ABSTRACT>

An Analysis of the Use of Media and Children's Spoken Language in an English Curriculum of a Private Nursery School

Chung, Hyunsong(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this research, we analyzed the use of media and the spoken language of children in an English curriculum of a private nursery school. The research was based on the three-year long longitudinal observation on the classroom activities and the evaluation which were conducted between 2013 and 2015. It was revealed in the analysis of the use of media that teachers' interference should be minimized while the media is used during the classroom activities. Verbs should be exposed extensively to the children in the form of keyword presentation. More sophisticated activities should be given to the children to improve their ability in understanding and speaking numbers. In the analysis of the spoken language of the children, it was found out that more efforts are required to prevent the fossilization of children's loanword pronunciation.

★ **Key words:** English for children, spoken language, media, longitudinal study